

외국인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산림정책에 대한 提言

임업소득 없어 무관심이 문제

- 20년후 열대목재 고갈될것에 대비해야 -

韓獨山林經營事業機構
수석자문관 H. 리히텐베르거

이 글은 韓獨山林經營事業機構 首席諮問官인 리히텐베르거씨가 4년여 한국 근무를 마치고 1992년 12월 19일 本國 歸還에 앞서 山林廳·林業研究院에서 위 제목으로 발표한 세미나내용을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 宋英振 博士가 翻譯 整理하였다. -편집자

1. 山林政策이란 무엇인가?

林政學이란 Niesslein(獨逸 Freiburg 大學 教授)에 따르면 山林과 人間社會와의 關係를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이와 관련된 過程과 影響力 및 實行可能性을 다룬다. 따라서 實際的 山林政策은 林業의 自然的 興件, 社會政策的 興件, 山林에 미치는 人間の 影響, 그리고 이로부터 派生되는 林業狀況 및 알 수 있는 傾向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이로부터 實際的인 目標을 設定하고 實行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2. 韓國林業의 自然的 興件

韓國은 地質構造上 山이 많은 나라로서, 主山脈은 동해안을 따라 놓여있고 서쪽지방과 낙동강을 따라서는 沖積地로 된 盆地를 이루고 있다. 林地肥沃도는 보통이나, 중부 지방은 석회질토양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氣候는 4계절이 뚜렷하나 기온차가 심

하며, 빙하기때 氷河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습도 및 온도도 적당하여 植物種이 多樣하다. 만약 인간의 영향이 없었다면 山岳地는 물론 底濕地까지 全 국토가 森林으로 덮혀있을 것이다. 大氣圈內에서 한국의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을 것이나, CO₂ 증가와 여타 유해 가스배출 증가로 오존층파괴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3. 山林에 대한 人間の 影響과 社會政策的 興件

한국은 현재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또 권위적인 정치는 민주화로 가는 過渡期이다. 인구밀도는 km²당 약 440명으로 매우 높으며, 현재 年평균 인구증가율은 0.9%로 '60~'70년대보다는 현저히 둔화되었다. 大都市로의 극심한 人口流入현상에 따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45%가 집중되

어 있다.

따라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주택 및 교통난, 공기오염, 식수공급난, 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농산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로 농·임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부채지주 및 부채산주가 증가되었다.

생활수준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流動性 증가와 함께 자동차 및 산림휴양객이 急增하여 산림에 弊害를 주고 있다. 또한 自然利用 性向支配思想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균형은 고려치 않은채 자연을 인간 임의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공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산림개간, 공기오염 및 소음이 증가되고 있다. 공기오염물질은 산림에 피해를 주고 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양비옥도를 저하시키는 물론 토양을 오염시켜 食水質을 떨어 뜨린다.

4. 韓國 林業의 現況 및 特性

임업은 再生可能한 원자재인 목재를 계속 공급해 주며 산사태방지, 식수보호 및 생활용수공급, 기후보호, 동식물보호, 경관보전 등 다양한 保護機能도 한다. 임업은 생산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조기수입이 불가능하고 이자율이 낮은게 특징이다. 林分은 대부분 60~70년대 대면적조림으로 조성되었으므로 평균임령이 18년(1991년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업은 현재 자원화단계(Aufbaubetrieb)로 육림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시기이며 임업소득은 미미한 상태이다.

산림소유분포를 보면 사유림비율이 71%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산주 1인당 평균 소유규모도 2.5ha(1987년)로 매우 영

세하다. 반대로 국유림은 21%, 기타 공유림은 8%에 불과하다.

한국전쟁(6.25)이후 山林荒廢로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山林復舊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산림을 녹화하였다. 그러나 산림녹화 이후 산림경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임업에 관심이 없고, 政府 역시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 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주들은 산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山地轉用으로 投機效果만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國內的 生産量은 수년전부터 停滯상태인데 이는 낮은 목재가격 때문만은 아닌듯 싶다. 국내재가격은 1984년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했다. 輸入材는 대경재에다 원하는 양만큼 수입할 수 있고 또한 조제비도 국내재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목재수요 증가분을 수입재로 충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열대활엽수재의 공급이 어려워 질 것은 확실하다. 즉 東南亞 雨林이 남벌로 인하여 急減하고 있어 목재공급이 감소될 것이며 결국 가격이 상승할 것은 뻔하다. 아마 약 20년후면 熱帶材는 완전 枯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산림은 녹화이후 지금은 林道개설 및 育林을 위한 第2次 大投資時期이나 이에 필요한 예산 및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산림을 休養林으로 利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어 이는 산림개간을 뜻하고 산림경영은 급경사지로 밀려나고 있으며, 공기오염은 토양산성화와 함께 산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

山林政策에 대한 提案

- 일반공공에 대한 산림청 위상 강화
- 산림행정의 효율성 최대화
- 산림의 자연생산력 향상 및 이용극대화
- 목재시장정책의 장기계획 및 실행
-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임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5. 韓國의 實際的인 山林政策에 대한 提案

5.1 實行順序

한국 임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히 다음 분야가 시급하다. 즉,

- 一般公共에 대한 山林廳 位相 強化,
 - 山林行政의 效率性 最大化,
 - 山林의 自然生産力 向上 및 利用極大化,
 - 木材市場政策의 長期計劃 및 實行,
 - 私有用者들에게 새로운 林業經營을 할 수 있도록 動機를 賦與하는 일이다.
- 본인은 다음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겠는데 본인의 提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얻은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한국임업을 올바르게 판단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혹 이 제안이 既存規定이나 行政節次에 反하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5.2 一般公共에 대한 山林廳 位相 強化

한편으로 임업의 특수성과 중요한 문제점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결정권자인 국회

의원, 경제기획직원 등 산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설득도 해야 한다. 특히 弘報 및 설득작업에는,

- 木材生産은 수익성이 낮은 長期事業,
- 氣候, 水, 土壤 등을 위한 산림의 保護機能 때문에 山林保全과 育林이 필요하고 또 산림은 환경보호와 국민의 휴식처로서의 중요성,
- 산림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林道開設과 育林에 많은 投資가 필요,
- 熱帶闊葉樹材의 枯渴에 따라 國內材增産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CO₂ 흡수를 위한 山林의 機能強化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 오늘날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空氣汚染物質의 輩出 減少이다.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욕구와 기대 때문에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러한 욕구와 기대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산림휴양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가능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大衆을 위해 전시회(예, 광릉 산림박물관), 언론매체, 林內標識板(설명)설치, 휴양객들과 직접대화 등이 중요하다. 산림내 여가이용증가에 따라 산림폐해를 줄이고 산림경영에 가능한 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용객을 조절해야 한다. 잦은 人間交流를 통하여 政策決定權者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

山林廳 位相은 국가 他 部處(機關)와의 交流擴大로 높여야 할 것이다.

- 경제기획원(예산, 경제적 문제, 장기적인 인원충원),
- 상공부(道, 郡에 대한 영향력,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계획, 통계),
- 환경처(환경보호분야 공동작업, 산림에 대한 영향력 제한, 대기오염 측정),
- 교통부(임도의 公路와 연결),
- 농촌진흥청(사유림보조·지도, 限界農地에 造林, 통계),

5.3 山林行政의 効率性 最大化

다음의 제안이 산림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山林現場에 더 많은 人力 配置; 그러나 하부기관 사무실이 아닌 林內에 더 많은 人力을 配置하고 관리소의 관할면적을 축소하여 經營를 集約化 해야 한다.
- 경영집약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實務(現場)교육을 받은 임업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채용직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독 산림경영사업에서 임업기계훈련원을 설립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한독산림 경영사업 종료후 산림청에서 임업기계훈련원과 소속직원을 흡수하기를 바란다.
- 임업기계훈련원의 교육은, 임업공무원이 같은 자리에 현재보다 더 長期間勤務 해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같은 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그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잘 훈련된 공무원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業務를 下部機關에 더 많이 委任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 공무원의 決定能力을 더 높이기 위하여,

업무처리가 타당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인정해줘야 하고 상급기관에서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監査는 해당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감사관이 해야 한다.

山林廳에 山林勞動問題를 다룰 “山林勞動課”新設이 필요하며, 담당할 주요 업무분야는 예를들면,

- 山林技能人의 選拔 및 教育,
- 多數로 조직된 作業團을 2인조 작업단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작업법 도입,
- 년중작업(가능하다면)
- 새로운 작업방법을 위한 임금표조제 및 적용과 적정 소득보장,
- 사회보장제도 도입,
- 사고예방 규정마련 및 실행 등이다.

현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統計係를 補強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는 공기오염, 산림노동자, 사유림, 목재판매, 기계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

임업연구원에 外國의 林業分野 研究文獻을 수집·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번역할 수 있는 부서신설이 요구된다. 한국 임업은 여러분야에서 중부 유럽의 임업여건과 유사점이 많으므로 특히 중부유럽의 문헌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課 혹은 局間에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미리 논의 결정하면 기관의 業務能率이 向上될 것이다.

임업연구원에서는 산림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업연구원의 장기시험연구 계획에는 모든 중요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획이 방대하므로 산림청은 이 계획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해야 할 것이다.

5.4 山林의 生産力 및 利用極大化

1) 生産力 增強

林業統計에는 현재까지 전체 산림면적만 기재되어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經濟林과 非 經濟林을 구분하는 일이다. 임지는 우선적으로 경사도와 비옥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經濟林에는 산림경영에 기본자료가 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 구분은 영림계획에 명시하고, 그림(圖)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체 산림면적의 약 2/3(4.3백만ha)를 경제림으로 보고 연간 ha당 성장량이 $5m^3$ 이면 연간 총 성장량은 21.5백만 m^3 에 달한다. 이 양은 현재 연간 총 목재수요량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물론 성장량의 대부분은 소경재이므로 수입대 경제를 대체할 수 없다.

단순림 및 혼효림은 성장량추정 검토 및 성장량조사가 매우 시급한데 長期試驗區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측정 조사해야 할 것이다. 각 수종별로 임지특성을 조사, 임지도를 작성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木材利用은 保續性原則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에게서 생태계인 삼림을 국민의 필요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또한 당대는 물론 후대도 우리와 똑같이 이용토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經濟樹種(현재 21대 조림장려수종)數를 장차 현저히 늘려야 할 것이며, 특히 재질이 좋고 성장력이 양호한 활엽수종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

林分造成(조림)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겠는데,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시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目標直徑”(Zieldurchmesser)에 도달할 때 까지 모든 수종의 벌기령을 연장하고,

- 모든 萌芽林(천연림)을 베어내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것은 경제적, 생태적으로 필요치 않고 아무 의미도 없으므로 형질이 좋은 맹아림은 보존가치가 있고, 차대에 가서는 실생묘가 나올 것이며,
- 만약 형질이 불량하여 樹種更新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임지에 맞는 混濬林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림보다 병충해에 강하므로 향후 대면적 단순림조성은 중지해야 하며,
- 林木育種에서는 모든 수종의 수형목을 선발 지정하여 장차 우량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해야 할 것이며, 우량종을 보존하고 식재토록 하는 일은 산림청의 과제이고,
- 가능하다면 天然更新比率를 지금보다 더 높임으로써 作業量, 時間, 費用을 節減시킬 수 있으며 갱신법은 연구하면 가능할 것이며,
- 차후 下層植生除去는 中止해야 한다. 하층식생은 未來木의 樹幹을 保護해주고 潛芽發生을 억제하며 임내바람을 잠재워 주고 임지를 회복시켜주는 機能을 하기 때문이고,
- 育林 및 間伐는 대부분의 산림에서 임분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지연되면 될수록 수확시 가치손실이 많아지게 된다.

短期間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育林 方案은;

- ① 未來木 選定,
- ② 선정된 未來木을 피압하는 나무제거,
- ③ 다음으로 시간과 자금이 충분하면 不良木을 除去한다. 임업기계화된 실습림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해본 결과 ha당 20~30시간만 소요 되었음,

• 또 별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낫, 손도끼, 혹은 비슷한 기구를 사용한 가지치기이다. 지타후 유착시 목재내에 목재섬유질이 변형되고 腐朽가 생겨 결국 수확시 커다란 목재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우선 국유림만이라도 산촌 주민들의 이러한 지타를 금하고, 사유림은 기술지도를 통하여 중지토록 한다. 침엽수지타는 톱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며 활엽수는 필히 고사된 가지만을 톱으로 베어야 한다. 生枝를 자르면 나무에 부후가 생길 위험이 있다.

病蟲害防除에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토양 및 수질오염,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약제살포 대신에 병충해에 저항력이 강한 혼효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충해방제는 “피해허용 한계”를 넘었을 때에만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生物的 防除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림의 경험에 의하면 대기오염과 토양산성화 측정시설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정치인들을 설득하는데 좋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利用

현재 木材生産은 林道網不足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임도개설은 최우선 과제이다. 1991년 말까지 총 3,628km의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은 4.3백만ha의 경제림만을 계산하더라도 ha당 1m도 안된다. 현재 매년 1,047km의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임도목표를 ha당 10m로 할 경우 아직도 40,000km를 더 개설해야 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도개설 속도로 봐 약

40년이 소요된다. 임도시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관리소별로 종합임도망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집재방법에 따라 노망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으로 저렴한 임도시공법이 임업기계훈련원에 의해 개발되었다.

임도의 보수 관리 역시 동한시해서는 않되며 특히임도의 배수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토록 한다.

伐採는 지금까지 木商에게 임목매각으로 大面積皆伐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기령연장에 따라 금후에는 간벌을 더 많이 해야하고 생태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면적개벌을 줄이는 대신 천연갱신(群狀傘伐作業 혹은 帶狀作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경재벌채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훈련이 잘된 산림전문기능인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2인조 작업이 바람직하며 산림專門技能人과 集材期間 공동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現 상황에서 바람직한 집재방법은;

- 短材는 logline을 이용하거나 집재후 斷材하고,
- 長材는 경사지와 집재거리 100m까지는 집재기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일크레인 이용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고정식 원치는 설치·해체시간이 너무 길어 비 경제적이다. 收穫機 (Harvester, Processor)는 현재 불필요하다. 수확기 투입에는 임도망이 충분해야 하며 경사가 너무 급해도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부지방에는 부분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투입은 비 경제적이다. 농업용 트랙터를 집재기로 개조하기 위해 산림청은 독일 회사의 기술지원을 받은 광림공사를

“
**목재가는 1984년부터
 정체상태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하였다.
 때문에 산주들에게는
 산림경영에 대한
 동기가 없다.**
 ”

통해 작업을 시작하였다. 장래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수출도 할 수 있길 바란다.

林業機械投入時 중요한 점은 投入費用調査(감시)인데 이것은 국제계산방식에 따라 투입비용을 산정한다. 주요내용은;

- ① 固定費用: 이자, 보험, 세금, 보관료,
- ② 減價償却 및 修理費,
- ③ 維持費: 기름, 오일, 기계청소 및 손질,
- ④ 賃金 및 間接費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기계투입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기계의 폐기시점, 구입여부, 투입가능성 등을 결정하게 된다.

木商의 將來役割에 대해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으나 목상 작업단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토록하여 산림분야에서 계속 일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목상작업방식은 산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계속 작업은 중지해야 한다.

5.5 木材市場政策의 長期計劃 및 實行

세계적으로 小徑材供給超過 추세이므로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大徑材를 많이 생산하고 대신 소경재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伐期壽命을 연장하고 소경재를 가능한 한 적게 생산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제를 하지 않는 새로운 간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韓國內 목재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國內材價格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즉 목재가는 1984년부터 정체상태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필요한 양의 외재를 유리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목재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때문에 산주들에게는 산림경영에 대한 동기가 없다.

국내재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短期的措置(예, 수입관세 상향조정)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입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 현재 ha당 연간 벌채량 0.1~0.2m³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 벌채량 확대와 함께 특정한 용도의 목재를 장기적으로 목재산업에 공급토록 노력하며,
- 새로운 목재이용법을 개발하고,
- 국내재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벌채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m³당 조제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木材檢尺은 전국적으로 同一한 方法을 적용토록하고, 末口直徑自乘法 대신 中間直徑計算法을 사용하는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木材販賣는 임목매각을 지양하고 林道販賣制度를 도입해야 한다. 임도판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상을 배제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목상들이 事前 價格談合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상(수집상)이 새로운 上車시설과 목재운송시

설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해주고 또 임도와 공로와의 연결도 지원해줘야 한다. 목재시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개발전략을 적기에 세워야 한다.

정부는 사유림과 목재업계와의 공동작업을 지원해 주어 중요한 결정은 실행에 앞서 서로 토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15~20년후 열대 활엽수재의 수입이 불가능해져서 국내재를 다량 이용해야 한다면 현재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토의해야 한다.

5.6 私有林所有者들이 새로운 林業經營을 할 수 있도록 動機賦與

평균 2.5ha의 산림면적을 가지고는 합리적 산림경영이 불가능하므로 私有林協業經營만이 零細性을 극복할 수 있는 唯一한 대안이다, 산림청은 과거 大面積造林을 위해 山林契를 조직하여 成功리에 事業을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山主와 非山主로 구성된 이 공동체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지금은 有名無實한 상태이다.

1977년부터 2번째 방법으로 山主 自由意思에 따른 山主協業經營을 導入, 실행중인데 현재 전국에 140여개의 협업체가 조직되어 있어 앞으로 계속 확대시킬 계획이다.

山林綠化 以後 山林契活動이 현저히 沈滯되고 산주와 비산주간 여러가지이해관계로 마찰이 생김으로 산림계를 段階的으로 解體시키고 協業體設立 만을 支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協業體運營이 활발해질 것이며, 협업체에 法人格을 賦與해야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다. 법인격획득으로 자체사업이 가능해지며 재정지원도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지급이

군 산림과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협업체에 직접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山主 助言과 技術指導를 위해 협업체마다 담당 林業技術指導員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업체는 산림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1명의 지도원이 몇개의 협업체를 지도토록 한다. 이 경우 指導員은 郡所在地에서만 거주해서는 안되고 필요한 경우 협업체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지도원들을 군 산림조합 사무실에만 앉혀두지 말고 산에가서 기술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원들의 給與中 일부만을 國庫에서 支援받고 나머지는 自體收益事業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모순은 중시되어야 한다. 國民經濟를 위해 임업기술지도를 해야 할 지도원들이 자체수익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私有林에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금후 보다많은 財政支援이 필요하다. 따라서 山主는 소유산림을 正常的으로 經營해야 할 道德的義務를 지게되는데, 이는 一般公共에게 山林의 保護 및 利用機能을 提供해줘야 하고, 임업은 여러世대의 사업이므로 自己後孫에게 소득원을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私有林은 산림에서 所得이 충분히 나올때까지는 支援과 激勵이 필요하다. 솔잎혹과리피해가 심한 사유림에 대해서는 特別補助金 支給方案이 要求되며, 또 私有林에 休養施設을 하여 入場料를 받을 수 있도록 法的根據의 마련도 필요하다.

木材利用時 地域所在 製材所 및 木材業界와 協業方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 協業은, 私有林協業體는 제재소에 徑級과 質이 정해진 일정량의 목재공급을 약속하고,

제재소는 이 목재를 市價대로 구입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국가는 이를위해 산주에게 임업기능인교육, 기계대여, 산주지도업무를 지원해 주고, 전망이 있는 소·중규모제재소 혹은 목재산업체에는 金融支援과 함께 기술자문을 해줄수 있을 것이다.

伐採에 있어, 시간낭비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만이 伐採許可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벌채가 자주 지연되고 또 벌채계획량이 끝난 郡은 벌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伐採許可制度의 簡素化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적 측면에서 필요한 육림 및 간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적기에 실시하지 않으면 林分質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私有林內 林道開設도 국유림과 마찬가지로 時急한 課題이다. 임도개설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現金 自負擔은, 대부분의 산주들이 현금 지불능력이 없으므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안으로는 산주가 현금대신 노동력을 제공한다거나 임도개설시 벌채한 목재를 판매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임도와 公路間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있다. 農業分野에서는 근래 기계화를 위해 耕地整理事業을 추진중인데 경지정리때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와 협조로 경지정

리시 논과 산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무거운 목재반출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포장도 해야 할 것이다.

私有林經營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많은 산주들이 都市로 移住함에 따라 산림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사유림 면적의 40%가 不在山主의 소유로 되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기관에서는 법규를 제정하여, 방치산림을 경영토록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방안으로는 방치산림을 협업체나 이웃이 필요한 작업을 대신해주고 비용을 받는 방법이다.

合理的인 山主經營에는 林業技術이 절대 필요하므로 희망山主의 教育을 위한 林業機能人訓練院(全北 鎭安)의 설립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國家에서는 山林作業에 필요한 教育教材를 製作 산주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한 林業 公務員(임업기술지도원 포함) 역시 새로운 山林經營知識을 배워야 산주를 지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산주보다 경영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長期的으로 볼 때 韓國林業은 私有林經營의 正常化를 통해서 만이 현재 產業社會의 欲求를 充足시킬수 있을 것이므로, 私有林이 장래 自力으로 山林經營을 할 수 있을때 까지 支援을 繼續해 줘야 할 것이다.

심으면 푸른산, 가꾸면 경제림